

기획논문

전통적 지정학의 영토개념에 대한 지리교육적 논의와 방향성 연구

범 영 우*

A Discussion on the Territorial Concept of Traditional Geopolitics and Future Direction in Geography Education

Yeongwoo Beom*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전통적 지정학의 영토개념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탈영토적 영토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있다. 나아가 탈영토적 관점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지정학적 학습 요소를 이해하는 중요한 방법론이 될 수 있음을 살펴본다. 전통적 지정학은 지리적 환경과 영토적 이해관계에 초점을 두면서 지리적 요인을 결정론적으로 개념화하여 고정적 틀에서 영토를 해석하는 한계점을 지닌다. 탈영토적 관점은 영토의 개방적 경계와 다양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한 복합적 존재로서의 영토를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지리교육의 방향은 영토를 개방적이고 유동적인 존재로 상정하여 영토 인식의 범주를 확장한 개념화를 시도하고, 영토개념을 다양한 요인이 얽혀 구성되는 탈영토적 공간으로 배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 '한국지리 탐구' 교육과정에서 영토교육과 관련된 내용체계 방향성을 살펴봄으로써, 기존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유연하게 변화된 영토교육내용을 검토했다. 더불어 탈영토적 접근이 정착될 수 있는 영토교육의 구체적 방향성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시점에서 역동적 영토 공간을 마주하는 학습자의 변화대응력 신장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지정학, 지리교육, 2022 개정 교육과정, 한국지리 탐구, 탈영토적 접근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issues surrounding the concept of territory in traditional geopolitics and to propose directions for a deterritorialized approach to territorial education. It also examines how this perspective can serve as a key methodology for understanding the geopolitical learning elements of the 2022 revised curriculum. Traditional geopolitics, with its focus on geographic environments and territorial interests, interprets territory within a fixed framework, presenting limitations. In contrast, the deterritorialized perspective emphasizes open boundaries and the complex interactions among various actors. The study seeks to expand the conceptualization of territory as an open and fluid entity and to position it as a deterritorialized space influenced by multiple factors. By reviewing the direction of content related to territorial education in the newly introduced Korean geography inquiry curriculum, it assesses the flexible changes compared to the existing curriculum and discusses specific directions for establishing a deterritorialized approach in education. This study will be able to contribute to increasing the ability of learners to respond to change facing dynamic territorial space when the 2022 revised curriculum is applied.

Key words: Geopolitics, Geography Education, The 2022 revised curriculum, Korean Geography-An Inquiry Approach, Deterritorial Approach

* 전남대학교 지리교육과 조교수(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ywbeom@jnu.ac.kr

I. 서론

지정학(地政學, geopolitics)은 지리적 요인이 지역 및 국가의 정치, 경제, 군사 등 다양한 특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Ratzel의 정치지리학 개념을 활용하여 Kjellén에 의해 창발한 지정학은 단순한 지리적 위치를 넘어 기후, 지형, 자원 분포 등이 국가 행위에 미치는 일련의 파급(Agnew, 2003)을 탐구한다. 이는 국제 관계의 이해에 필수적이고 다학제 측면에서 접근되었다. 지정학은 인간 활동에서 지리적 요소의 중요성을 탐구하고, 이 요소들이 인간의 선택과 사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해 왔다. 이 과정에서 국제정치에 대한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해왔지만, 동시에 권력 구조에 종속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시각에 따르면, 지정학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국가 전략의 한 부분으로 사용되며, 때때로 국가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정치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이정태·은진석, 2019). 이는 지정학이 도구적 합리성을 통해 대립과 갈등 담론 안에서 머물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최근 지리교육에서는 지정학이 지니는 시사점으로 평화와 공존의 시선, 지역지리의 새로운 돌파구, 환경과 기후변화의 분석 틀이라는 세 가지 지리교육적 접근이 소개되기도 했다(지상현, 2024). 이러한 관점은 맹목적 애국주의에 기반한 영토교육의 대안이 됨과 동시에 국제정치, 외교 등의 학생 진로 분야 개척의 선봉 대오가 될 수 있다는 시각(권정화, 2024)과 결을 같이하며, 지정학의 교육과정 도입이 지리교육의 질적 성장을 담보하는 외연적 확장을 주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지정학이 중·고등학교 지리 교육과정에 본격적으로 반영되었다. 이에 따라 지정학에서 다루는 다양한 요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특히 영토교육에서는 전통적 지정학의 관점에서 지리적 요소와 공간을 인식했다. 다양한 지리적 스케일에서 살펴볼 수 있는 지정학이 갖는 공간적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Flint, 2002), 우리나라 영토교육은 주로 전통적 지정학에서 논의하는 지리적 환경과 영토적 이해관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영토개념을 활용하는 데 있어 지리적 요인을 결정론적으로 개념화하여 다소 경직된 틀 속에서 이뤄졌다. 전통적 지정학에서는 대륙과 대양, 하천, 산맥 등의

자연 지리적 요인을 고정불변의 자연환경인 객관적 사실로 간주하였다(이대희, 2021). 따라서 전통적 지정학에서의 우리나라 영토는 정치적 섬으로 간주한 채, 제약과 구속을 가할 수 있는 물리적 요소로 대상화되거나, 맹목적인 애국심과 국토애를 채워 넣어야 할 수동적인 존재로 개념화되었다. 더불어 영토는 안보를 지키고 평화를 유지해야 하는 분단 담론과 함께 인간의 특정한 의도에 따라 ‘자연적’, ‘객관적’으로 대기고 있는 물질로 간주되었으며, 이러한 영토개념을 중심으로 구성된 지리 교과 내용은 선형적인 영토관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 점에서 비판을 면치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지리교육의 영토교육 범주가 전통적 지정학에서 논의되는 영토의 한계점과 맞닿아 있는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동안의 영토교육은 전통적 지정학 또는 고전적 지정학 관점에서 인간, 영토, 인간과 영토의 상호작용을 중시하였고, 영토 자체에 대한 객관적 지식을 강조했다. 이러한 전통적 지정학의 도식화된 시각은 환경 결정론적 지정학과 맞닿아 있으며, 결과적이고 선언적인 영토 지식의 주입으로 연결되기도 했다. 결국 전통적 지정학, 환경결정론적 지정학은 자연적 지리 특성에 한정하여 지리가 정치에 주는 영향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도전에 휩싸이게 되었다. 더불어 단순화되어 결정화된 영토개념이 인간의 행위를 일부 제약하면서 민족주의 감정의 호소를 촉발하는 민족주의적 관점으로 호도되기도 했다(박선미, 2010). 이러한 맥락에서, 지정학에서의 민족주의적 시각은 국내 지리학 및 지리 교육에서 대안적인 영토교육을 위한 논의로 이어졌다. 구체적으로는 영토의 새로운 인식을 통한 영토교육의 방향성을 제안하는 연구(김기남, 2020; 남호엽, 2011; 박선미, 2009; 2010; 임덕순, 2006; 최영진·백일순, 2021)와 영토교육의 목적에 따라 모형이나 모델을 제시하여 교육의 지침을 제공한 연구(서태열, 2009; 전보애, 2016), 독도를 포함한 최근 영토교육 현황(심정보, 2019; 2023; 2024; 조인성, 2023)을 주로 논의해 왔다. 한편, 본질주의적 영토 인식의 전환을 주장한 연구에서는 인간주의 지리학에서의 본질적, 고정적 속성을 지닌 영토개념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박배균, 2010; 2013; 황규덕·박배균, 2019). 그리고 영토의 경계를 내부와 외부의 경합으로, 닫혀있는 영토의 경계가 지니는 경직성을 문제시하였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자는 전통적 지

정확의 문제를 극복하는 방향으로서 영토개념의 탈영토적 접근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역동적 영토 공간의 지리교육 방향성을 위해 탈영토적 영토개념을 중심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한국지리 탐구의 변화된 영토교육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더불어 한국지리 탐구의 내용 요소를 중심으로 전통적 지정학 관점에서 결정론적으로 개념화된 영토개념의 한계를 극복하고, 탈영토적 접근이 정착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성을 논의할 것이다. 본 논문은 2022 개정 지리과 교육과정의 영토교육 안착을 위한 탈영토적 접근의 지리교육적 의미와 필요성을 제공했다는 데 연구 의의가 있다.

II. 지정학과 영토교육

1. 우리나라 지정학과 영토교육

영토는 지정학에서 논의하는 일종의 공간적 배열로서 집단 정체성의 토대가 된다. 이런 맥락에서 영토성(territoriality)은 영토에서 창출된 정체성의 구획을 정하는 인식의 기반 혹은 통제력 행사의 기본 단위라고 할 수 있다(Tsirigotis, 2015). 지정학에서의 영토와 영토성은 국가의 지리적 위치와 관계, 세계의 인식에 사유 단위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영토교육의 뿌리는 지정학적 사고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지정학이 영토개념의 범주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지정학에 대한 이론적 흐름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지정학은 지리와 정치의 상호 관계를 탐구하기 때문에 정치지리학의 학문적 정의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근대 지리학의 창시자로 여겨지는 Ratzel에 의해 발전한 정치지리학은 특정 학문 분야로 자리 잡았지만, 지정학의 정체성은 다른 방식으로 구별된다. 지정학은 공간, 특히 영토를 둘러싼 다양한 갈등과 그 양상을 밝히는 지리적 논리 또는 접근 방식으로 정의된다(이대희, 2017; 2021). 따라서 지정학은 영토, 지역, 국가 단위에서 나타나는 지정학적 갈등의 논리를 분석하려는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여러 지리적 관점을 포함한다(Heppele, 1986; Agnew and Corbridge, 2002; Flint, 2021).

정치학에서의 주요 분석 대상으로서 지리적 요인을 중시했던 전통적 지정학은 영토 자체에 관심을 두면서 인간의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자연지리를 강조한다. 인간

이 환경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접근, 담론 및 이데올로기의 분석, 헤게모니 그 자체에 초점을 둔 비판적 지정학의 흐름과 구별하여 그 이전의 접근을 전통적 지정학 또는 고전적 지정학으로 분류할 수 있다(O Tuathail, 1996). 전통적 지정학은 자연지리의 속성을 강조하며 자연을 인간 활동에 구속을 부과하는 환경 요인으로 물리적 영토성 그 자체를 중시하였다. 지정학의 범위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기술 지정학과 경제 지정학을 포함한 권력 경쟁 구조 및 그와 관련된 상황을 모두 포괄한다(Lacoste, 2009). 지정학은 인문사회 분야 전반에서 널리 사용되는 용어이며, 세계 전략에서 강대국의 결정적 영향력을 설명하는 전통적 지정학, 사회적 실재론을 수용하여 지정학적 활동이 특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보는 문화적 현상으로서의 비판적 지정학, 그리고 프랑스 지정학으로 나눌 수 있다(지상현·플린트, 2009). 특히, 다양한 공간적 규모를 오가며 국가의 흥망성쇠와 직결되는 지정학적 중요성은 지리학 및 지리교육에서의 공간 변화 양상과 결합되어 여러 방면에서 탐구될 수 있다.

우리나라 지리학은 1960년대 초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성장이 시작되었지만, 일본에서 학술적으로 사용했던 '지정학'이라는 학술 용어와 내용을 받아들임으로써 당시 일본 지리학자들의 '반도의 숙명' 논의에 대한 여과를 거치지 못했다(오홍석, 2004). 따라서 환경 결정론적 지정학의 문화적 헤게모니를 답습하게 되면서 한국의 지정학적 상상력은 식민주의적 지식 형태로 안주하게 되었다. 해방 이후 식민 경험에 대한 저항을 통한 지정학의 민족주의적 관점은 환경 결정론적 지정학 관점과의 충돌로 인해 여전히 '강대국'과 '약소국'이라는 이분법의 인식론적 거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지상현, 2013; 2022).

2000년대까지 우리나라 지정학 연구는 전통적 지정학 관점에 기반을 두고 지정학 사상에 관한 연구, 강대국이 지니는 지정학의 정치적·지리적 전략의 분석 및 해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김광채, 1977; 이영형, 2004; 이영형·김승준, 2007; 이종철, 1997; 임덕순, 1999; 최병두, 2003). 최근 포스트 구조주의의 확산과 함께 학계에서는 새로운 지정학적 관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발맞춰 우리나라 지리학계에서는 포스트 식민지정학(Sharp, 2013), 서발턴 지정학(Sharp, 2011) 등 기존의 지정학적 접근과는 다른 형태의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류제원 외, 2020;

이승욱, 2018; 이진수·지상현, 2022; 지상현, 2016; 지상현·플린트, 2009; 지상현 외, 2017; 2019; 황진태, 2023).

우리나라 지리교육에서 지정학 교육은 서구의 지정학 교육과 함께 반도 담론을 중심으로 접근한 전통적 지정학 관점을 극복하고자 했던 시도의 형태로 논의되어 왔다(지상현, 2013). 지리교육에서의 지정학 교육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줄곧 대두되었으나(권정화, 2015; 남호엽, 2011), 중단원 규모의 세계전략 학습으로서의 지정학을 활용한 사례(조성욱, 2019), 통일 및 영토교육으로서의 지정학(김기남, 2020), 특정 국가 중심의 지정학 접근(심정보, 2015; 이동민, 2022) 등의 일부 교육적인 적용 방식이 있었으나, 질적·양적 수준의 다양성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다만, 최근 박준희(2024)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2022 개정 교육과정 및 고교학점제의 실행에 맞춰 지정학 수업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지리 수업의 교육적 활용과 관련하여 강조하였다. 지역 및 세계 정세의 양상을 둘러싸고 펼쳐지는 다양한 스케일의 공간 정치는 지정학의 귀환으로 설명되는 경쟁과 협력의 시대인 세계화의 시점과 맞닿아 있다(Boniface, 2011). 이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지리교육을 실천하는 전국의 교사 연구회에서도 세계화와 지정학의 관련성을 통찰하여 학교 지리에서의 지정학 수업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였다(박병석 외, 2023). 최근에는 지정학과 지리교육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학술 연구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다. 한동균(2024)은 초등 지리교육에서의 지정학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내용으로서의 지정학과 방법으로서의 지정학을 구분하여 지리 수업에서의 효과적인 적용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2. 영토교육의 탈영토적 접근

김기남(2020)은 평화와 통일을 위한 시대적 요구에 합당한 시민성 교육의 방안으로서 영토와 경계의 관계적 인식을 제안하였다. 지리교육에서 다루어진 다양한 교과 내용의 폐쇄론적 국토관을 지적하면서 영토에 대한 개방적

이고 다층적인 인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인간주의 지리학에서 장소를 닫혀진 공간으로 인식했던 담론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린 관계적 지리와 맞닿아 있다. 열린 공간의 구도로 인식해왔던 반본질주의적 장소성은 후기 구조주의(post-structuralism) 지리학에서 주장하는 개념으로, 장소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항상 역동적이고 변화하며 다른 사회적 관계로 형성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본질주의적 장소관이 장소의 고유한 특성과 안정성을 강조하는 반면, 반본질주의적 장소성은 장소의 관계성, 복수성, 개방성을 중시한다. 이러한 반본질주의적 장소성의 특성은 Massey가 제시한 세 가지 명제로 확인된다(표 1). Massey는 장소를 이동, 흐름, 연결 등의 속성을 통해, 보다 관계적으로 바라봐야 하며, 장소란 항상 변화 속에 있는 이질적인 것의 연합으로, 공간적 서사가 다양하게 만나는 일련의 ‘사건(event)’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Soja(1980)는 일명, ‘사회-공간 변증법’을 통해 공간이 사회적 과정으로 생산되고, 생산된 공간이 다시 사회적 과정을 매개한다고 하며 공간과 사회를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던 기존의 시각을 해체하였다. 즉, 공간은 단순히 사회적 행위가 발생하는 배경이 아니라, 사회적 행위와 상호 작용하며 변화하는 역동적 존재라는 것이다. Pred(1984) 역시 변화와 과정을 강조하는 장소의 개념을 제안하였다. 그는 장소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항상 ‘형성되어 가는 과정(becoming)’이라고 하였다. 즉, 장소는 특정한 시공간적 맥락에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과 수행이 지속성을 통해 형성되는 역동적 산물인 것이다. 또한 Rose(1993)는 페미니스트 지리학자로서 남성 중심으로 재현된 장소들을 비판하며, 집과 가정은 돌봄과 양육의 장소라기 보다는 이데올로기, 권력관계, 문화적인 제약 등으로 채워진 갈등의 장소라고 하며, 인간주의 지리학자들의 장소 개념을 비판하였다. 즉, 장소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공간이 아니라, 사회적 권력관계와 불평등이 반영된 공간이라는 것이다. 전통적 지정학에서 논의했던 선형적, 불변

표 1. Doreen Massey의 공간에 대한 세 가지 명제

- 공간은 상호관계들의 생산물이다.
- 공간은 복수성이 존재하는 가능성의 영역이다.
- 공간은 폐쇄적인 적이 없고, 고정된 적이 없다. 공간은 항상 되기(Becoming)의 과정이다.

출처: Massey(1995)의 내용을 연구자가 재구성

적 영토성의 한계를 이해하는 데 전술한 Massey, Soja, Pred의 장소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영토교육에 있어 개방성이 담보된 활력있는 장소의 사유를 통해 영토의 대안적 인식을 논의하는 데 중요한 방법론을 제공한다.

후기구조주의 지리학자들은 장소를 진정성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을 지양하고, 관계 간의 흐름을 통해 장소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반본질주의적 장소성은 장소의 역동성과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지만, 장소의 정체성과 안정성을 간과할 수 있다는 비판점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박배균(2010)은 장소에 대한 비본질주의적 접근을 대안적인 측면에서의 장소 인식인 ‘관계론적 장소관’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하였다. 관계론적 장소관에서는 장소를 본래 정해진 고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장소의 내부 및 외부에 있는 여러 다양한 요소들 간의 관계와 결합을 통해 정치적·사회적으로 형성되는 것에 주목한다. 즉, 특정 장소에 그어진 경계선은 변하지 않는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그 장소를 중심으로 얽히는 여러 관계의 조합에 따라 얼마든지 지워지거나 새롭게 설정될 수 있는 ‘사회적’인 특성을 가진다.

국가의 경계가 일부 모호해지는 탈경계화는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현상으로, 전통적인 국가 중심의 영토관과 충돌하게 된다. 특히 기존 이론이 국가를 이루는 영토를 단일하고 폐쇄적 존재로 간주하는 것과 달리,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으로 살펴보는 국가는 느슨한 형태의 그릇으로 이해된다(이정태·은진석, 2019). 이런 맥락에서 영토성은 지도 위에 그려진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굴곡 있는 기복과 무한한 단면으로 쪼개질 가능성의 표면을 가진 변화의 미시적 경계를 지닌 탈영토화된 개념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는 전통적인 지정학적 이해에 도전적이면서 대안적인 렌즈로 배치될 가능성을 제공한다.

이처럼 영토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을 넘어 역사·문화·정치·사회적 의미가 담긴 복합적 개념이다. 따라서 영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영토(장소)관은 옳고 그름이 있다기 보다는 시대적 흐름이나 가치관에 따라 사용되는 것이라고 본다. 각 영토관은 장단점이 있고 특징이 뚜렷하여 우리의 상황에 맞는 영토관을 선택하여 사용하거나 두 가지 이상의 영토관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확실한 것은 어떤 영토관을 적용하여 영토교육을 받느냐에 따라 우리 영토(장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이고 이는 학습자가 향후 우리 영토에 대한 가치관이나 주변 국가를 바라보는 시선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적절한 영토관을 정립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할 필요가 제기된다.

III. 한국지리 탐구의 영토교육 분석과 탈영토적 관점 검토

1. 2022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지리 탐구 교육과정 분석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한국지리’라고 불렸던 과목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한국지리 탐구’로 명칭이 변화하였으며, 과목의 성격도 일반 선택 과목에서 진로 선택 과목으로 변경되었다. 중요한 것은 기존의 한국지리 과목이 무수한 교육과정의 변화 속에도 대동소이하게 변화하였으나, 2022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교과 명칭부터 내용체계, 내용 요소, 핵심개념, 성취기준까지 대대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지역지리의 내용이 중학교 사회로 흡수되면서 해제되어 한국지리 탐구 과목은 기존 교육과정이 꾸준히 재현해내었던 지역지리와 계통지리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지역과 계통의 조화로운 절충

표 2. 영토적 접근과 탈영토적 접근

	영토적 접근	탈영토적 접근
영토의 정체성	영토 내부에 뿌리내린 행위자들만 정체성 지님	영토 내·외부의 다양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으로 형성
영토 인식	내·외부가 확실히 구분되는 영토	내·외부의 구분이 상대적으로 약함
경계	폐쇄적 경계가 존재	개방적 경계를 지향
이동성	외부인들이 합부로 출입할 수 없음	행위자들의 출입과 이동이 자유로움

출처: 이정태·은진석(2019)의 내용을 연구자가 재구성

적 시도로 구성되었다. 기존 '한국지리' 과목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 '탐구'라는 단어를 추가한 이 과목은 단순히 과목명의 변경만을 꾀한 것이 아니라 '탐구'의 의미를 살리는 측면에서 내용 구성과 접근 방식 등에서 큰 변화를 보였다(이종원·성정원, 2023). 한국지리 탐구 과목의 변화는 4차 산업 혁명으로 대변되는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리 교육과정의 성격 측면과 2015 개정 지리 교육과정의 내용 상의 구조적 불균형을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지리 교육과정의 내용 측면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한국지리'는 지형, 기후, 도시, 경제, 인구 등 계통 지리적 접근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반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한국지리 탐구'는 '변화'와 '지속가능성'을 핵심 키워드로 설정하고, 국토를 넘어 다양한 공간적 범위에 대한 이해와 탐구를 강조한다(이종원·성정원, 2023).

한국지리 탐구는 학습 범위를 동아시아 지역까지 확대하여 우리의 생활 공간을 보다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도록 제안한다(표 3). 또한, 다중 시민성 함양을 위해 다양한 공간적 범위를 역동적이고 탄력적인 방식으로 구성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결국 국토라는 영역을 고정된 틀에서 다루지 않고 변화 가능성이 존재하는 공간으로 설정한 점은 기존 교육과정에서 제시했던 영토의 절대적 위치성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이종원, 2023).

2022 개정 교육과정 사회와 각론에 따르면, 한국지리 탐구 과목의 성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생활 공간, 한반도, 동아시아 등 다양한 공간적 범위에 대한 이해와 탐구를 통해 국토와 지역의 변화, 지속가능성,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둘째, 기존 한국지리 과목과 달리 '탐구를 통한 학습'을 강조한다. 학생들은 국

토 환경 및 지역 관련 이슈와 쟁점에 대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정책 제안 및 평가에 필요한 탐구 역량을 기를 수 있다. 셋째, 진로 선택 과목으로서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탐색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즉, 한국지리 탐구는 단순한 지리 정보 암기를 넘어, 지리적 사고력과 탐구 능력을 함양하여 국토와 지역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책임감 있는 시민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내용체계를 핵심 아이디어 및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체계와 비교할 때, 단순 지식 습득을 넘어 문제 해결 능력과 가치 판단 능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지식·이해의 내용 요소 및 성취기준에서 영토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내용은 생활 속 지리탐구, 국토의 변화와 균형 발전 탐구, 동아시아 갈등과 공존 탐구의 범주에서 확인할 수 있다(표 4). 이와 더불어 과정·기능, 가치·태도의 영토교육 내용도 지식·이해 측면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제시하였다(표 5).

'생활 속 지리 탐구' 영역은 학생들과 가장 밀접한 공간인 '로컬'과 '지역'을 다루며, '실존 공간 및 생활 공간'으로서의 영토'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핫 플레이스'를 활용하여 매력적인 장소의 조건과 장소 마케팅 전략을 학습하고 실천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높인다. '국토의 변화와 균형 발전 탐구' 영역은 지역과 국가 개발 및 불균형 문제를 다룬다. 학생들은 불균등 성장과 지방 소멸 문제를 탐구하고, 국가 및 지역 수준의 정책을 평가하고 제안하면서 국토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을 기른다. '동아시아 갈등과 공존 탐구' 영역은 영토교육 및 지정학적 관점을 다루며, 국가 및 동아

표 3. 스케일을 반영한 한국지리 탐구의 구성

스케일	로컬	지역	국가	동아시아
선정 기준				
지리탐구	(1) 공간정보와 지리탐구			
실제성(실생활)	(2) 생활 속 지리탐구			
변화와 지속가능성		(3) 국토의 변화와 균형 발전 탐구 (4) 환경과 지속가능성 탐구		
지정학			(5) 동아시아 갈등과 공존 탐구	

출처: 이종원·성정원(2023)

표 4. 「한국지리 탐구」 과목의 지식·이해 측면의 영토교육 관련 내용 요소와 성취기준

범주	내용 요소	성취기준
지식·이해	생활 속 지리 탐구	· 관광과 여가, 장소 정체성과 장소마케팅 [12한탐02-02]한 플레이스의 특징, 생성과정, 정체성 이슈를 조사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안한다.
	국토의 변화와 균형 발전 탐구	·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국가균형발전 [12한탐03-04]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소멸과 국토 불균등 발전 문제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국가 및 지역 수준의 국토균형발전 방안을 제안하고 실현 가능성을 평가한다.
	동아시아 갈등과 공존 탐구	· 북한의 당면과제와 남북협력 · 경계와 영역, 동아시아 지정학과 평화·공존 [12한탐05-01]북한의 지리적 특징과 당면과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남북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12한탐05-02]한반도를 둘러싼 국가 간 경계와 접경지역을 분석하고, 동아시아 지역의 발전과 평화·공존을 위한 지정학적 전략을 토론한다.

출처: 교육부(2022)

표 5. 「한국지리 탐구」 과목의 과정·기능, 가치·태도 측면의 영토교육 관련 내용 요소와 성취기준

범주	내용 요소
과정·기능	· 다양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표현하여, 공간적 패턴이나 규칙을 찾고, 여러 관점에서 결과 해석하기 · 위치, 장소, 지역 간 상호관련성, 스케일 간 상호의존성 측면에서 결과 해석하기
가치·태도	· 국토의 의미와 가치 인식 · 국토환경에 대한 생태 감수성과 책임감

출처: 교육부(2022)

시아 범위에서 우리 영토를 조망한다. 더불어 북한 지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남북 협력 방안을 고민하고, 경계 및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이해하며, 궁극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발전과 평화 공존을 위한 우리나라의 역할에 대해 토론한다. 이 영역에서는 영토교육의 핵심개념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경계, 접경지역, 분단, 동아시아 평화 등을 논하며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지정학적 사고를 함양하게 된다.

한편, 신교육목표분류체계(Krathwohl, 2002)는 Anderson과 Krathwohl에 의해 제안되었다. 기존의 Bloom의 교육목표분류체계와 다른 점은 인지적 영역을 지식 차원과 인지과정 차원으로 구분한 점과 종합단계와 평가단계를 각각 평가단계와 창안단계로 재편한 점이다(Anderson

and Krathwohl, 2001). 신교육목표분류체계는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수업을 이어지는 교수·학습 설계에 있어 교과 내용의 적절성을 판별하는 토대를 제공해주기에 성취기준 분석에 효과적이다(표 6).

본 연구에서는 영토교육 관련 성취기준을 신교육목표분류체계에 따라 분류하여 교과 내용의 적절성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지리 탐구는 상당히 추상적인 지식과 복잡한 인지과정을 요구하는 과목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존 한국지리 과목보다 더욱 고차원적인 지식과 인지과정 수준을 요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습자의 역량 함양을 강조하는 교육적 흐름이 한국지리 탐구의 성취기준에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6. 신교육목표분류체계(Krathwohl, 2002, 216)

지식의 차원	1.기억하다	2.이해하다	3.적용하다	4.분석하다	5.평가하다	6.창안하다
A. 사실적 지식						
B. 개념적 지식						
C. 절차적 지식						
D. 메타인지적 지식						

우선, 영토교육과 관련된 성취기준이 학습차원에서 지니는 전제는 영토의 지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12한탐 02-02]는 개념적 지식 차원에서 ‘분석하기’와 메타인지 지식 차원에서 ‘창안하기’가 결합되어 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12한탐 03-04]는 메타인지 지식의 ‘평가하기’와 ‘창안하기’라는 고차원적 지식 차원과 인지과정 차원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제안하고 실현 가능성의 평가가 진행될 것이다. [12한탐 05-01]는 절차적 지식 차원에서 ‘창안하기’를 통해 새로운 통일의 방향성과 국토의 활용 방안에 대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12한탐 05-02]는 사실적 지식 차원에서 ‘분석하기’와 메타인지 지식 차원에서 ‘창안하기’를 통해 평화와 공존을 위한 다양한 지정학적 전략을 분석하고 새로운 방안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하면, 한국지리 탐구의 영토교육 관련 성취기준은 단순히 인지적 차원의 단순한 지식을 암기하게 하거나 이미 정해져 있는 협소한 범위의 내용을 수용적으로 받아들이는 형태가 아닌, 영토를 둘러싼 다양한 관계, 요소를 다층적으로 살펴 보면서 해결해나가는 탐구과정이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영토교육 비교

2015 개정 교육과정 한국지리와 2022 개정 교육과정 한국지리 탐구 교육과정을 비교해보면 한국지리 탐구는 기존 한국지리 교육과정의 내용체계가 대폭 축소 및 수정되었고, 내용의 성격과 방향성에 많은 변화를 보인다. 따라서, 기존 한국지리와 새로운 한국지리 탐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지리와 한국지리 탐구의 차이점(이종원·성정원, 2023)을 변화, 삭제 및 축소, 추가 및 확장의 세 차원에서 정리하고자 한다.

1) 변화된 부분

(1) 과목 명칭 및 성격 변화

과목의 명칭이 한국지리에서 ‘한국지리 탐구’로 변경되었으며, ‘탐구’라는 단어가 추가된 것은 교육과정 내에서 학습자의 능동적인 활동을 더욱 강조하는 변화이다. 또한, 일반 선택 과목에서 진로 선택 과목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리와 관련된 진로 탐색 및 직업 소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 독도 교육의 변화

독도 교육의 방향이 변화되었다. 기존의 독도 및 동해 관련 교육은 애국주의적, 민족주의적 영토교육의 관점에서 이루어졌지만,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한국지리 탐구에서는 학생들이 동아시아 영역 갈등의 심화, 반일 감정, 혐오를 갖지 않도록 하며, 스케일의 범주를 넓혀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 발전, 평화 및 공존을 강조하고 있다(교육부, 2022).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비교해 보면, ‘독도’라는 용어가 성취기준에서 사라졌으며(표 7), 첫 단원에서 다루어졌던 학습요소 ‘영역’의 내용이 마지막 영역으로 이동한 점도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3) 미래지향적 내용으로의 변화

한국지리 탐구에서 미래지향적인 내용으로 기술 방향이 변화한 것을 심정보(2024)는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첫째, 고등학교 사회과에서 시민성 함양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둘째, 지리 교육계에서 줄곧 강조해 온 배타적 민족주의를 조장하는 영토교육으로부터의 탈피이다. 셋째, 현 정부의 한일 관계 설정 방향의 영향이다. 이는 기존의 영토교육에서 강조하였던 지정학적 민족주의를 탈피하고 세계시민의 위치성에서 영토를 개방적이고 역동적으로 사유하는 관점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7. 「한국지리 탐구」 과목 교과서별 영토 관련 개념 비교

교육과정	영역	성취기준
2015	(1) 국토 인식과 지리 정보	[12한지01-01]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위치와 영역의 특성을 파악하고, 독도 주권, 동해 표기 등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한다.
2022	(5) 아시아 갈등과 공존 탐구	[12한탐05-02]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 간 경계와 접경지역을 분석하고, 동아시아 지역의 발전과 평화·공존을 위한 지정학적 전략을 토론한다.

출처: 교육부(2022)

2) 삭제 및 축소된 부분

(1) 내용체계 및 성취기준 축소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한국지리는 7개 영역, 28개 성취기준으로 구성되었지만,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한국지리 탐구는 5개 영역, 15개 성취기준으로 내용이 대폭 축소되었다. 특히 성취기준은 거의 절반 가까이 축소되었다. 이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 변화에 발맞추어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교육과정의 체질을 개선하고,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온 학습량과 난이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2) 지역지리의 변화

기존 한국지리에서는 7번째 영역에 지역지리를 배치하여 앞 영역에서 배운 계통 지리적 지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용이 구성되었지만, 한국지리 탐구에서는 지역지리 단원이 삭제되어 지역과 계통을 넘나들며, 경직된 단원 설정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는 지리 교육과정의 내용과 성격을 함께 고려하여 설정한 것이고, 영토교육 측면에는 특정 지역에 당면시되어 주어지는 사실적 정보를 넘어 다양하게 접근이 가능한 형식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3) 추가 및 확장된 부분

(1) 실생활 연계성 및 유용성 강조

한국지리 탐구는 국토환경이 당면한 지리적 쟁점과 이슈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실제 생활하는 영토에 착안하여 일상생활 속 다양한 경험과 관련이 있는 주제로의 접근을 시도했다. 세계 자연 유산, 지속 가능성, 개발과 보전 및 복원 방식을 중심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한국지리와 연계하여 내용 관련성을 높였다. 또한 상품 사슬, 핫 플레이스,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 등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연결되거나 흥미를 끌 수 있는 소재를 교육과정에 추가했다.

(2) 공간 스케일 확장

기존 한국지리가 다루는 영역의 범위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정되었지만, 한국지리 탐구는 학생의 생활공간을 통해 주요 이슈와 쟁점을 접근하도록 하였고, 특히 로컬-지역-국가-동아시아로 공간 범위를 확장했다. 이러한 다중 스케일적 접근은 더 넓은 스케일(동아시아)

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봄으로써 거시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으로 우리 영토를 이해하는 폭넓은 기회를 제공한다.

(3) 국가 간 경계 및 접경지역 내용 추가

기존 교육과정에서는 영토교육을 다루면서도 경계 및 접경지역의 내용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지리 탐구에서는 ‘동아시아 갈등과 공존 탐구’ 영역에서 경계와 접경지역에 대한 성취기준을 새롭게 도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계의 성격이 변화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이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이슈를 해석하며 평화와 공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있다. 교과서마다 차이가 있지만, 육상 경계로 비무장지대를, 해상 경계로 북방한계선과 일본, 중국과의 중간 수역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우리나라의 경계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접경지역에 살아가는 주민들의 삶과 경계를 넘나들며 살아가는 사람들(북한이탈주민과 이주민)에 대해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지리 과목의 목표는 우리 국토의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에 대한 지리적 이해를 바탕으로 국토 공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지리적 현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우리 삶의 터전을 보다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지리적 사고력, 분석력, 창의력, 의사 결정 능력 및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며,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가치관을 형성하게 하는 데 있다(교육부, 2015, 158).

한국지리 탐구의 목표는 국토환경 및 지역이 당면한 지리적 이슈와 쟁점에 관심을 갖고, 탐구를 통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토와 지역에 대한 지리적 이해, 이슈와 문제에 대한 탐구능력, 환경의 지속가능한 활용,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중시하는 태도를 함양하고자 한다(교육부, 2022, 168).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한국지리에서는 국토의 자연환경, 인문환경의 지리적 이해를 통해 국토 공간의 지리적 현상의 종합적인 파악을 목표로 두었다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한국지리 탐구는 국토 공간의 이해에 있어 지리적 이슈와 쟁점에 관심을 두고, 탐구를 통한 대안적 접근을 할 수 있는 세계시민을 양성하는 것으로 목표를 두었다. 결국,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한국지리 탐구가 영토교육에

있어 학습자를 지식습득자로 보는 대신 이슈와 쟁점으로 변해가는 영토의 역동성을 적극적으로 탐구해야 하는 자기주도적 시민으로 상정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탈영토적 접근을 위한 영토교육의 방향성

전통적 지정학 연구는 영토를 변하지 않는 개념으로 보고, 그 영토가 가져오는 물질적 제약이나 이익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영토는 국가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며, 그에 따라 관리해야 할 위협이자 자산으로 인식된다. 전통적 지정학에서 영토성은 영토에 기반을 둔 정체성의 범위 혹은 경계를 설정한다는 점에서 영토의 물리적 인식을 제공하면서 인위적으로 구성된 전략으로 작동되기도 한다(이정태·은진석, 2019). 탈영토적 접근은 이러한 영토성이 지니는 외부와 내부의 엄격한 경계를 개방하고 국가 및 영역 중심적 인식론을 해체하는 방식을 지향한다. 따라서 탈영토적 접근은 폐쇄적 경계가 엄밀하게 존재하여 외부인들의 출입이 제한되고 영토 내부에 뿌리내림을 통한 행위자들만의 공간으로 인식하는 영토적 접근과는 대립하는 방향이지만, 한편으로 기존의 영토관을 보완하여 영토교육의

여백을 채울 수 있는 교육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표 8).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한국지리 탐구는 전통적 지정학의 이해에 도전적이고 보다 대안적인 렌즈를 통해 역동적인 영토교육을 시도할 수 있는 교과로서의 성취기준과 내용체계로 구성되었다. 예를 들면 “[12한탐05-02]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 간 경계와 접경지역을 분석하고, 동아시아 지역의 발전과 평화·공존을 위한 지정학적 전략을 토론한다.” 등에서는 한국을 넘어선 아시아 갈등과 공존을 탐구하기 위한 개방적이면서 기존의 영토적 한계를 넘어선 접근을 할 수 있다.

실제 단위 학교의 교수학습 측면에서는 한국지리 탐구의 학습 요소를 활용해 영토교육 관련 탐구활동 질문을 적용해 볼 수도 있다. 기존 한국지리 교육과정에서 학습했던 인지적 영역 중심의 학습 방식과는 다른 형태의 질문을 구성하고, 이를 위한 교수·학습방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때의 질문은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현상에 지리적 질문을 던지고 답을 구하기 위해 탐구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활동을 조력하기 위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표 9).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한국지리 탐구에서는 전술하

표 8. 지리교육에서 적용할 수 있는 탈영토적 접근의 영토교육 방향성

1. 문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토 특징 파악하기(전통 지정학의 영토적 관점 : 지리적 환경, 위치) • 영토 문제 확인하기(이슈, 쟁점, 행위 주체 파악)
↓	
2. 영토성 벗어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토 내의 뿌리 내린 행위자를 해체하기(행위자 분석이 선행) • 지리적, 환경적 입지의 제약을 허물기 •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이해하기(미시적 관점에서 생활 영토로 이해하기)
↓	
3. 경계 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토 내부 및 외부의 다양한 행위자 그려보기 • 경계를 희석하여 자유로운 출입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 상상하기
↓	
4. 탈영토적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국가적 존재들로 국가를 인식하기 • 전통적 영토성의 관념과 정체성 벗어나기

표 9. 한국지리 탐구에서 탈영토적 접근을 위한 활동 질문

영토교육 관련 탐구 활동 질문(예시)
1.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 생활 영토를 파악해보고, 어떻게 변해왔는지 살펴보자.
2. 국경에서 갖는 공포와 위협의 원인을 찾고, 평화적 상상을 통해 경계를 다시 바라볼 수 있을까?
3. 하늘과 바다를 이용해 살아가는 미래 사회 속에 우리 삶의 모습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추론해 볼까요?
4. 국경이 없는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생각해 보고, 세계적인 발전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한다면?
5. 공존을 위한 우리의 영토를 위해 불균형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을 여러 스케일 속에서 찾아보자.

였듯이, 그동안 다루어지지 않았던 접경지역과 지정학 개념이 새롭게 도입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영토 문제 중 북한과의 분단 문제는 국가적 관점으로만 바라보기보다는 동아시아 정세 및 동아시아에서 한반도의 위치 등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거나, 학생이 생활하는 미시적 수준에서 연결시키는 등 학생이 속한 지역-국가-세계와의 연계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공간 변화의 역동성을 이해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영토를 위한 다양한 탐구를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지정학은 이전 교육과정에서 일부 국제계열 전문 교과에서 등장했으나 공통 과정의 교과 성취기준으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다(박준희, 2024). 분명 논쟁적인 단어이지만, 지정학이 교육과정에 반영된 것은 영토교육 측면에서 나름의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기존의 경직된 영토교육을 넘어선 탈영토적 관점은 학생들로 하여금 영토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영토관의 형성에도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IV. 결론

본 연구는 전통적 지정학에서 국가 단위의 닫힌 경계가 지닌 영토개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으로 영토의 관계적 인식을 제안하며 그 지리교육적 의미를 논의하였다.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한국지리 탐구를 통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한국지리에서 일부 보여지는 고정적이고 폐쇄적인 영토성을 보완할 수 있는 역동적인 영토교육 내용의 방향성을 살펴보았다. 지정학은 지리학 내 인문지리의 주요 내용으로 다루어져 왔으나,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그 비중이 낮게 평가되었고, 중등학교 학생들에게 다소 어려운 내용으로 인식되었다.

그동안 지리교육에서 지정학의 중요성이 간과된 부분이 있었기에,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도입된 ‘지정학’에 대한 교육 방법론과 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는 시의성을 지니고 있다. 탈냉전 시대 이후 지정학적 경쟁과 협력의 시대로의 전환 속에서, 복잡한 불확실성을 포착하는 세계정세에서 지리와 정치의 관계를 규명하는 노력의 중요성이 커졌다. 지정학 교육의 현장은 사회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수행 궤적이 교차하는 공간으로, 일률적인 교육 방식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교

사의 실천적 지식과 수업 과정에서의 성찰을 통해 지정학 학습 모듈의 효과성과 교육적 의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정학 교육의 관심과 방향성은 학생들이 영토와 함께 일상적으로 얽혀 있는 존재로서 지리적 역량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최근 자원 및 국경 분쟁, 난민 이동과 정착 문제는 모두 지리적 위치 개념을 중심으로 발생하며, 이는 지정학의 중요성을 반증하는 사례가 된다. 이에 따라 난민 및 분쟁의 지정학적 연구와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생태시민은 다양한 문화와 정치적 상황에 대한 이해와 민주시민으로서의 존중과 배려를 요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내용과 직결되어 지구적 차원의 다양한 지정학적 이슈에 대한 지리교육 측면의 연구 지평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에서 고유의 영토성과 불안한 국가안보는 고정된 영역과 로컬 스케일에서만 바라볼 수 없는 문제이며, 이는 지정학적 탈영토화의 맥락에서 살펴 봐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학생들은 지리적 이슈에 대한 학습자이자 지정학의 주체로서 다양한 정치 과정의 수업 탐구를 통해 스스로 세계를 도식화하고 지리적 관점을 형성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지정학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지역, 국가, 대륙, 세계 단위의 복잡한 이슈를 현재의 관점에서 시사적으로 학습하면서 고정적 사고방식과 식민주의적 지리 정보를 비판적으로 재구성하고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지정학은 복잡한 세계정세를 이해하는 공간적 통찰력과 거주 주체의 관점에서 공간을 사유할 수 있는 제3의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을 앞두고, OECD Education 2030에서 강조하는 행위 주체성과 변혁적 역량 강화를 위한 지정학 수업 연구는 지리교육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전통적 지정학의 영토 개념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선형적인 인과성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추후 연구에서는 지정학에서의 탈영토적 관점의 영토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의 설계와 적용이 후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부, 2015,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고시 제2015-74호 [별책 7].
- 교육부, 2022,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 7].
- 권정화, 2015, “동양의 이태리: 근대 지리교육과 반도 담론의 전개, 사회과학교육연구, 17, 1-12.
- 권정화, 2024, “지정학, 지리교육의 시대정신인가? 사이비 지식 산업인가?”,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학술대회발표집, 9-10.
- 김광채, 1977, “Karl Haushofer의 지정학 사상에 관한 연구”, 지리학연구, 3(1), 193-204.
- 김기남, 2020,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한국지리 교육과정 구상: 영토와 경계의 관계론적 인식을 중심으로”, 28(2), 73-87.
- 남호엽, 2011, “글로벌 시대 지정학 비전과 영토교육의 재개념화”,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9(3), 371-379.
- 류제원·조용혁·지상현, 2020, “아래로부터의 지정학: ‘한국의 히로시마’ 합천의 원폭피해자를 사례로”, 대한지리학회지, 55(2), 181-195.
- 박배균, 2010, “장소마케팅과 장소의 영역화: 본질주의적 장소관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3(3), 498-513.
- 박배균, 2013, “영토교육 비판과 동아시아 평화를 지향하는 대안적 지리교육의 방향성 모색”, 공간과 사회, 44, 163-198.
- 박병석·민석규·박상길·이용훈·안민호·한충렬·박종희, 2023, 나의 첫 지정학수업, 서울: 탐.
- 박선미, 2009, “독도 교육의 방향: 민족주의로부터 시민적 애국주의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7(2), 163-176.
- 박선미, 2010, “탈영토화시대의 영토교육 방향-우리나라 교사와 학생 대상 설문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8(1), 23-36.
- 박준희, 2024, “고교학점제를 대비한 지정학 수업프로그램의 지리교육적 함의”,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태열, 2009, “영토교육의 개념화와 영토교육모형에 대한 접근”,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7(3), 197-210.
- 심정보, 2015, “태평양전쟁기의 일본 지정학 사상과 국민학교 지리교육”,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3(3), 1-21.
- 심정보, 2019, “사회과 교과서의 독도 내용 현황과 문제점”, 독도연구, (27), 437-468.
- 심정보, 2023, “지리 분야에 있어서 독도연구의 동향. 독도연구”, (35), 175-201.
- 심정보, 2024, “2022 개정 교육과정 사회과 지리 영역의 개발과 독도 기술의 특징”, 독도연구, 7-32.
- 오홍석, 2004, “현대 한국지리학사”, 줌A&B, 서울.
- 이대희, 2017, “정치학의 공간적 접근을 위한 시론적 연구”, 21세기정치학회보, 27(3), 119-137.
- 이대희, 2021, “비판지정학과 지리학적 지정학의 비교 연구”, 대한정치학회보, 29(1), 89-111.
- 이동민, 2022, “대러시아 관계에 있어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분열에 대한 다중스케일적 접근 -드니프로강은 어떻게 우크라이나를 지정학적으로 분단했는가?-, 문화역사지리, 34(3), 67-87.
- 이승욱, 2018, “접경지역의 도시지정학”, 대한지리학회지, 53(5), 625-647.
- 이영형, 2004, “시베리아 공간의 지정학적 의미와 러시아; 지정학적 요소/분석단위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20(4), 137-168.
- 이영형·김승준, 2007, “유라시아 동부지역 Pivot area의 성격과 북핵 6자회담에 참가하는 주변 4강의 개입전략에 대한 지정학적 해석”, OUGHTOPIA, 22(1), 203-230.
- 이정태·은진석, 2019, “전통적 지정학의 영토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행위자-네트워크이론(ANT)을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27(2), 47-76.
- 이종원, 2023,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대응하는 교육과정의 개발: 한국지리 탐구 과목을 사례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31(1), 93-106.
- 이종원·성정원, 2023,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한국지리 탐구의 개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31(2), 15-25.
- 이종철, 1997, “동북아 지역협력을 위한 경제지정학(geopolitical economy)적 접근, 지리학논총, 29(1), 25-39.
- 이진수·지상현, 2022, “포스트식민 한국에서 환경결정론적 지정학의 진유: 초기 현대 지리학에서 ‘한국의 위치’의 사례”, 대한지리학회지, 57(5), 437-450.
- 임덕순, 1999, “지정학: 이론과 실제”, 법문사.
- 임덕순, 2006, “지리교육에 있어서의 영토교육의 중요성”,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2006 추계학술대회 요약집, 11-13.
- 전보애, 2016, “‘그냥’ 영토교육과 ‘새로운’ 영토교육-통합적 영토교육 모형과 디지털스토리텔링맵의 구현”,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4(4), 73-91.
- 조성욱, 2019, “세계지리 교육에서 세계전략 학습의 유용성과 구성 방안”,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7(4), 39-53.

- 조인성, 2023, “영토교육 연구에서의 동향 분석”, *글로벌교육 연구*, 15(4), 135-165.
- 지상현·플린트, 2009, “지정학의 재발견과 비판적 재구성: 비판지정학”, *공간과 사회*, (31), 160-199.
- 지상현, 2013, “반도의 숙명: 환경결정론적 지정학에 대한 비판적 검증”, *국토지리학회지*, 47(3), 291-301.
- 지상현, 2016, “갈등과 협력의 동북아 지정학 -동향과 과제”, *국토지리학회지*, 50(3), 295-314.
- 지상현·정수열·김민호·이승철, 2017, “접근지역 변화의 관 계론적 정치지리학: 북한-중국 접경지역 단동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0(3), 287-306.
- 지상현·이승욱·박배균, 2019, “한반도 경계와 접경지역에 대한 포스트 영토주의 접근의 함의”, *공간과 사회*, 67, 206-234.
- 지상현, 2024, “환호와 배척을 넘어: 지리학적 지정학을 찾아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학술대회발표집*, 3-8.
- 최병두, 2003, “주한미군의 미시적 지정학-미군기지로 인한 지역사회의 범접 및 환경 문제의 발생과 해결방안”, *한국지역지리학회지*, 9(3), 297-313.
- 최영진·백일순, 2021, “평화·통일교육에서 유연적 영토교육의 중요성”,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9(4), 31-46.
- 한동균, 2024, “초등지리교육에서의 지정학적 접근의 의미와 방안 모색”,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학술대회발표집*, 20-22.
- 황규덕·박배균, 2019, “지리교육에서 장소 이해에 대한 관계적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소고”,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5(1), 20-37.
- 황진태, 2023, “포스트 코로나 시기, 신의주의 도시공간 변화와 북중관계 전망: 도시지정학의 시각에서”, *공간과 사회*, 33(3), 217-250.
- Agnew, J. and Corbridge, S., 2002, *Mastering space: hegemony, territory and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New York: Routledge.
- Agnew, J., 2003, *Geopolitics: Re-visioning World Politics*, Routledge, New York.
- Anderson, L. W. and Krathwohl, D. R., 2001, *A taxonomy for learning, teaching and assessing: A revision of Bloom's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 Complete edition*. Longman.
- Boniface, P 저, 최린 역, 2019, 지정학: 지금 세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가디언(Boniface, P., 2011, *La Géopolitique*).
- Flint, C., 2002, Geopolitics and The Courage to Teach: Identity, integrity and the subject of political geography, *Journal of Geography*, 101(2), 63-67.
- Flint, C., 2021, *Introduction to geopolitics*. Routledge.
- Hepple, L. W., 1986, The revival of geopolitics, *Political Geography Quarterly*, 5(4), 21-36.
- Krathwohl, D. R., 2002, *A Revision Bloom's Taxonomy: An Overview*, Theory into Practice.
- Lacoste, Y., 2009, Géopolitique, économie et nation, *Gééconomie*, (3), 39-44.
- Massey, D., 1995, The conceptualization of place. A place in the world?: Places, *Cultures and Globalization*, 45-85.
- Ó Tuathail, 1996, *Critical geopolitics: The politics of writing global spac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Pred, A., 1984, Place as historically contingent process: Structuration and the time-geography of becoming places,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74(2), 279-297.
- Rose, G., 1993, *Feminism and geography: The limits of geographical knowledge*, Polity Press.
- Sharp, J., 2011, Subaltern geopolitics: introduction, *Geoforum*, 42(3), 271-273.
- Sharp, J., 2013, Geopolitics at the margins? reconsidering genealogies of critical geopolitics, *Political Geography*, 37, 20-29.
- Soja, E. W., 1980, The socio-spatial dialectic,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70(2), 207-225.
- Tsirigotis, D., 2015, Boundaries Delimited. The Notion of Territoriality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Eurolimes*, (20), 165-180.

접 수 일 : 2024. 11. 04

수 정 일 : 2024. 11. 27

게재확정일 : 2024. 11. 28

교신: 범영우, 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지리교육과 조교수
(ywbeom@jnu.ac.kr, 062-530-2384)

Correspondence: Yeongwoo Beom, ywbeom@jnu.ac.kr